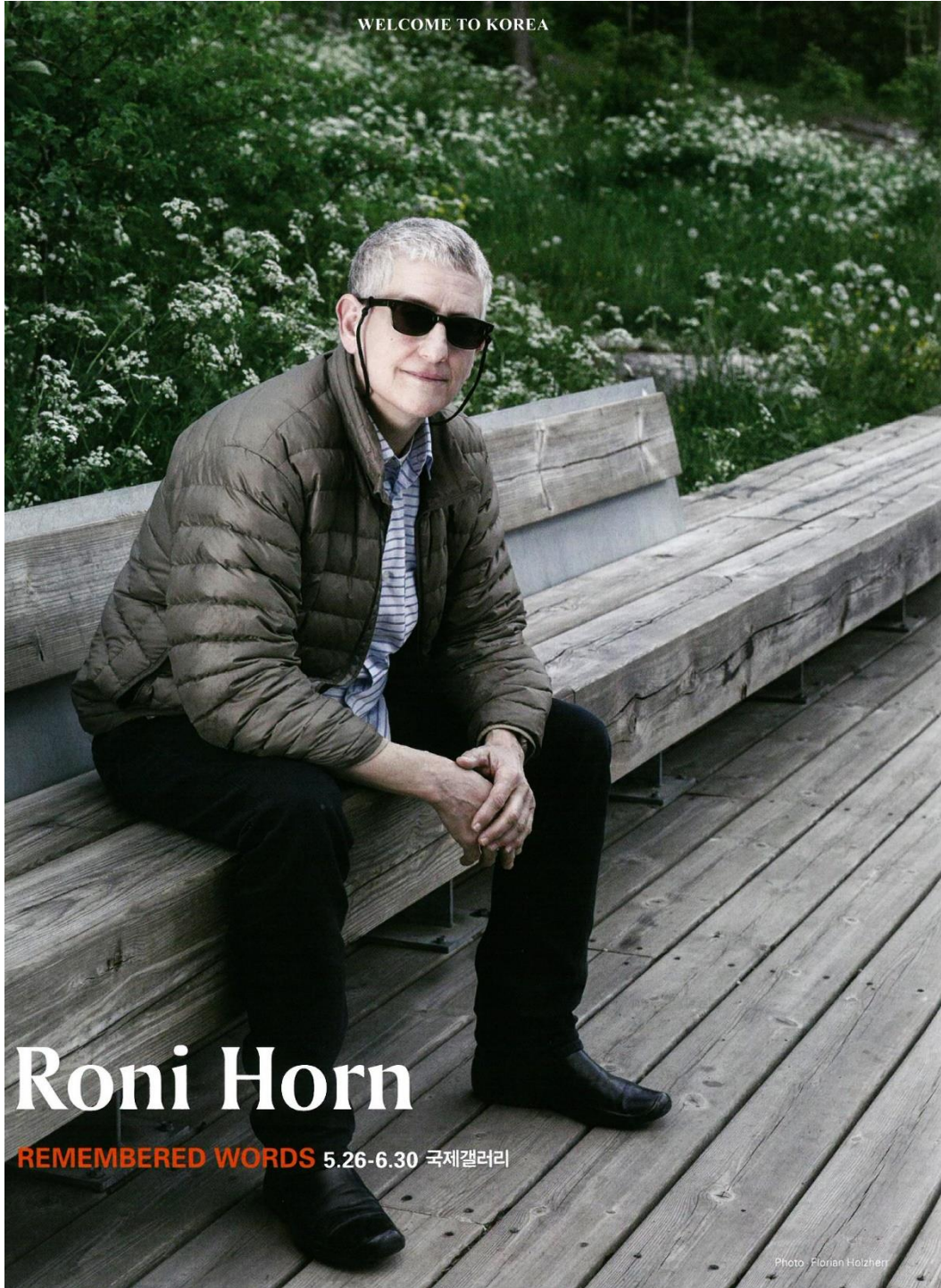


개념의 아름다움 혹은 아름다운 개념미술

June, 2018 | 이준희 편집장

page 1 of 2



## 개념의 아름다움 혹은 아름다운 개념미술



Photo: Alessandro Moggi

### 로니 혼 Roni Hor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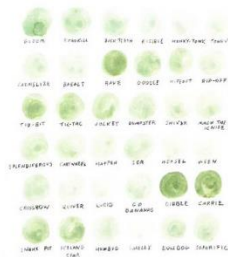
1955년 뉴욕에서 태어났다. 로드아일랜드 스쿨 오브 디자인을 졸업하고 예일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바젤 바이엘레재단(2016), 함부르크 콘스트왈레(2011), 파리 폼피두센터(2003), 뉴욕 디아 아트센터(2001) 휘트니미술관(2000) 등에서 전시했고, 2009년 런던 테이트 모던에서 대규모 회고전을 개최했다. 뉴욕현대미술관, 구겐하임미술관, 바젤 현대미술관, 삼성미술관 리움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개들을 겁먹게 하는 햇빛의 변화들”  
 “하나의 색깔으로 변질된 무지개”  
 “유성우 속에서 잠들었던 것에 대한 슬픔의 감각”  
 “바람을 거슬러 나아가는 빛”  
 “여자들이 거쳐했던 주거지 안에 달리 설명할 길 없는 불”  
 지난 2014년 국제갤러리 K3 전시장에 설치됐던 로니 혼의 유리조각 작품 하나하나에 덧붙여진 부제다. 알쏭달쏭 수수께끼 같은 이 문장이 부제인 까닭은 정작 작품의 타이틀은 모두 〈무제 Untitled〉였기 때문. 전 세계 생존 작가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개념미술가로 손꼽히는 로니 혼이 4년 만에 다시 서울을 방문했다. 5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제갤러리 K3에서 열리는 개인전을 위해 그녀가 들고 온 작품은 〈Remembered Word〉 시리즈. 전시 제목도 이와 같다. 2012년부터 2013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제작한 이 드로잉은 아주 단순하다. 여러 가지 색 수채화 물감으로 동그라미를 그리고 그 아래엔 영어 단어가 적혀있다. 단어의 뜻은 서로 아무런 상관없고 무작위로 추출됐다. 액자 크기는 각자 세로 각각 27.9cm, 38.1cm로 모두 동일하다. 이 액자를 3×3 조합으로 걸어서 9개 액자를 한 세트로 구성했다. 관람객의 시선은 요술(妖術)에 홀린 듯 저도 모르게 액자 양쪽으로 끌어당겨졌다 다시 멀찌감치 밀려나게 된다. 저마다 독립된 색채를 지닌 동그라미는 부분이며 전체, 즉 개별적인 동시에 총체적이다.

전시 개막에 앞서 작가를 만나 아와 테이블에서 한 시간 반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그날 내가 꺼낸 첫 대화 주제는 트럼프 대통령. 통역을 맡은 갤러리 관계자가 순간 긴장했다. 그녀가 언론 노출을 꺼리고, 작품 외 다른

얘기는 일절 하지 않는다는 까칠한 성격에 감정기복도 심하다는 주의사항(?)을 미리 들었던 바다. 우려와 달리 분위기는 시종일관 화기애애했다. 로니 혼은 이번 전시 출품작 시리즈를 “자서전적 풍경화”라고 했다. 그러면서 작품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도 밝혔다. 사실 이 드로잉 작업은 시각적인 효과에 앞서 청각적인 경험에서 출발했다는 것. 로니 혼은 외부소음이 완벽히 차단된 녹음실에서 혼자서 눈을 감고 무작위로 떠오르는 단어들을 소리 내서 말하고 그것을 녹음했다. 심지어 그 와중에 잠이 들기도 했고, 이렇게 무의식 상태에서 내뿜은 단어를 녹음한 후 나중에 다시 그 소리를 들으며 이 드로잉을 했다는 것이다. 자신의 내면에서 흘러나온 단어 소리를 들으며 색칠한 동그라미가 배열되고 중첩되면서 무규칙의 조합을 이룬 것이다. 나는 이 동그라미 아래 적힌 영어 단어에 담긴 뜻을 온전히 독해하고 이해할 수 없다. 이런 한계 때문에 오히려 문자가 주는 이미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시각적인 효과에만 몰입하고 아름다움에 집중할 수 있다. 작가의 의도에 편입되거나 얽매이지 않는 열린 교감의 무한한 가능성. 로니 혼은 바로 이런 관람 방식을 의도한 것이다. 그럼에도 누군가는 영어사전을 일일이 찾아가며 꼼꼼히 관람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광경을 바라보며 로니 혼은 어떤 생각을 할까? 로니 혼은 기존 양식이나 사조로 규정지을 수 없는 작가다. 스스로 개별 작품에 대해 설명하고 정의 내리는 행위 자체를 거부하는 태도를 지닌 작가다. 따라서 그의 작품을 이해하는 통로는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다. 로니 혼은 말했다. “나처럼 보여 하지 말고 당신처럼 보라”고.

이준희 편집장



로니 혼 〈Remembered Words—(Whippy)〉(detail) 2012-2013  
 Watercolor, graphite on paper  
 38.1×27.9cm, 9 parts  
 사진: Ron Amstutz  
 Courtesy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국제갤러리 3관(K3) 로니 혼 개인전 〈Remembered Words〉 설치전경 (왼쪽부터) 〈Remembered Words—(Sunflower)〉, 〈Remembered Words—(Snake Eyes)〉, 〈Remembered Words—(Whippy)〉, 〈Remembered Words—(Dumbwaiter)〉, 〈Remembered Words—(The Supremes)〉 이미지제공: 국제갤러리